전남도 26조 규모 신규사업145건 발굴

2차전지 부품 센터·국립민속박물관 순천분관 건립 등
1차 내년 5869억 국비 확보 위해 4단계 전략 실행

전남도가 26조원 규모의 신규사업 145건을 발굴해 우선 2021년에는 5869억원의 국비를 확보하기로 했다. 이들 신규사업은 민선 7기 새천년 비전인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 6대 과제와 2020년 3대 핵심과제 실현과 관련돼 있다.

전남도는 16일 "지난 14일 도청에서 김영록 전남지사를 비롯해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부처에 건의할 2021년 국고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건전 재정 운영 기조를 유지하며, 국정과제와 정부 업무보고, 정부가 새롭게 발표한 시책들을 연계한 사업 발굴에 중점을 둬 국고예산 확보 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올해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만큼 지역 현안사업이 후보들의 공약사업으로 선정되도록 하고, 지역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의과대학·4세대 방사광가속기·2022년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8) 유치 등 3대 핵심과제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전남도는 2021년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 4단계 전략을 세워 실행하기로 했다. 2월은 1단계로 사업 발굴 및 논리 개발기, 3~5월은 2단계로 중앙부처 집중 방문 및 공략기, 6~8월은 3단계로 기획재정부 공략기, 9~12월은 4단계로 국회차원 집중 공략기다.

핵심 시책인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 실현과 관련 '블루 에너지' 분야 중대형 이차전지 소재부품 시험평가 센터 구축(사업비 60억원), '블루 투어' 분야 국립민속박물관 순천분관 건립사업(100억원), '블루 바이오' 분야 해양 헬스케어 활성소재 유효성평가 실증지원사업(40억원) 등 신규사업을 발굴해 추진한다. '블루 트랜스포트' 분야 유·무인기 통합 인증 관제 인프라 구축사업(50억원), '블루 농수산' 분야 참조기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22억원), '블루 시티' 분야 태양광발전연계 수소생산 및 수소 전기차 실증인프라 구축 사업 등도 신규사업에 포함됐다.

지역 핵심 SOC 확충과 균형 있는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으로는 고흥~완도 등 국도 승격, 광주~완도 2단계 고속도로 등 고속도로 국가계획 반영, 전라선 고속철도(익산~여수) 등 7건 국가철도망 국가계획 반영 등을 추진한다.

/윤현석 기자 chadol@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난 14일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2021년 국고건의사업 선정을 위한 지역현안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를 주재하고 있다.

광주~혁신도시 출·퇴근 편해진다

광주시, 오늘부터 좌석02번
운행간격 단축·집중 배차

광주~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간 버스를 이용한 출퇴근길이 편해진다.

광주시는 "17일부터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를 오가는 좌석 02번 버스의 운행간격을 단축하고 집중배차한다"고 16일 밝혔다.

출근시간대인 오전 6시40분~7시55분에는 기존 6~16분 간격을 5~10분 간격으로, 퇴근시간대인 오후 5시52분~7시58분에는 기존 12~18분 간격을 10~13분 간격으로 단축한다. 출근시간대에는 2대, 퇴근시간대에는 4대 등 총 6대의 버스를 추가로 투입해 운행한다.

운행시간 조정은 출퇴근시간에 이용승객이 많아 버스를 한 번에 타기 어렵다는 이용객의 건의에 따라 이뤄졌다. 실제 이용승객을 분석한 결과, 2018년 131만1418명에서 지난해 155만2722명으로 12.7% 늘어났으며 특히 출퇴근시간대에 승객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좌석02번 버스는 혁신도시 입주민을 위해 2015년에 신설했다. 무등산국립공원(증심사)과 조선대학교, 문화전당, 광주역, 전남대학교, 광주종합버스터미널, 광주시청, 광주송정역 등 광주의 주요 지점을 거치는 등 광주와 나주를 빠르게 연결하는 직행좌석버스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손두영 광주시 대중교통과장은 "좌석02번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입주민과 광주에서 출퇴근 하는 시민의 교통편의 향상을 위해 운행하고 있는 노선"이라면서 "앞으로도 버스 이용객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편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 인도서 218만달러 수출협약 체결

전남도는 최근 인도 뉴델리와 첸나이에 시장개척단을 파견해 218만 달러 수출 협약을 체결했다.

16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번 시장개척단은 전남 소재 식품기업 2개사, 뷰티기업 2개사, 의료기기 및 공산품 4개사 등 총 8개사가 참여해 인도 뉴델리, 첸나이에서 각각 10회 이상 1대1 수출상담을 가졌다.

이번에 협약한 기업은 (주)잇다, (주)마린테크노, 경향셀(유), (주)로우카본, 와이지코스메틱(주) 등 5개사다. 업체별로 (주)잇다는 오리훈제 165만 달러, (주)마린테크노는 화장품 13만 달러, 경향셀(유)는 고무단열제 40만 달러를 협약 체결했고, (주)로우카본과 와이지코스메틱(주)도 각각 탈황촉매제와 마스크팩를 협약 체결했으나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협의키로 했다. 이밖에 (주)에스에프시는 비이온계면활성제, (주)케이에스는 의료기기 및 시약, (주)고마미지는 딸기·연근 등 신선농산물을 출품해 인도 시장진출 가능성을 타진했다.

한편 전남도는 도내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4월 5일부터 12일까지 블라디보스토크,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방문하는 러시아 시장개척단 참가기업을 모집한다. 참가기업은 전남에 소재한 15개 내외 기업으로 구성되며, 선정된 기업은 항공료 50%(최대 100만원), 바이어 발굴비, 현지 통역비, 상담장 임차료 등을 지원받는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문화관광재단 명절수당 부당 지급

전남도 정기종합감사서 적발
최근 2년간 1인당 100만원씩
커트라인 미달자 최종 선발도

전남문화관광재단이 명절휴가비가 포함된 연봉제를 채택하고도 최근 2년간 정규직원 1인당 100만원씩 명절수당을 부당 지급한 것으로 전남도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16일 전남도가 공개한 '전남문화관광재단 정기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재단 정규직 직원 보수는 연봉제로 운영하고, 연봉은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 지침에는 기본연봉은 봉급·정근수당·명절휴가비 등의 연액으로 하도록 했으며, 전남도 2018년 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에는 새로운 수당, 복리후생비 신설을 억제하고 특히 기본급 또는 기본연봉으로 전환된 수당은 재차 신설할 수 없다고 명시됐다.

그러나 재단은 2018년 3월 정기이사회에 보수규정 일부개정안을 상정, 복리후생비 지급근거를 명문화한다는 이유로 명절휴가비·건강검진비 지원을 신설했다. 이어 1인당 100만원의 명절수당을 2018년 2800만원, 2019년 5900만원 등 총 8700만원을 부당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도는 "정규직원에 대해서는 기본연봉에 명절휴가비가 포함돼 있으므로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을 개정하라"고 시정 요구하면서도 부당지급된 8700만원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 등 후속조치를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직원 채용 업무도 감사에서 지적됐다.

재단 인사규정에 따르면 필기시험의 경우 합격자는 매 과목 40점 이상과 과목평균 60점 이상 득점자 중에서 종합성적 고득점자 순으로 뽑는다고 돼 있다. 그러나 2017년 전남도 출자출연기관 통합채용 계획에 따라 9명을 선발하기 위한 필기시험 공고에는 '매 과목 4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 순'으로 뽑는다고 공지해 과락을 제외한 26명이 필기시험 합격자로 결정됐다. 그 결과 면접을 거쳐 최종합격자 명단에는 과목평균 60점 미만 응시자 3명이 오르게 됐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전남도 장기미집행시설 410개소 정비 완료

5000억 들여 토지보상·도로개설 마쳐

전남도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공원, 도로 등 장기미집행시설 410개소(면적 13㎢)에 대한 정비를 완료했다.

16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는 올 7월 1일로 예정된 2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일몰제 도입을 5000억 원을 투입해 토지보상과 도로개설 등을 마쳤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원 4개소에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 중이며, 도시자연공원구역과 보전녹지지역 지정, 국공유지 실효 유예 등에 나서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그동안 장기미집행시설 해소를 위해 일제조사와 시·군 간담회 개최, 유관기관 회의 등을 통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전남도는 앞으로 375개소 10㎢에 대해 토지매입과 실시계획 인가 등을 통해 실효되지 않도록 하고 도심 외곽에 있거나 난개발 우려가 없는 3049개소(27㎢)에 대해서도 시·군 관리계획 정비를 통해 해제할 방침이다.

전남도내 도시계획시설은 2만6691개소 731㎢로 자동실효 대상은 6.8%인 3834개소 50㎢이며, 매입재원은 5조50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전남도는 시·군 재정형편상 막대한 매입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지난해 중앙정부에 국비지원을 건의했었다.

김정남 전남도 지역계획과장은 "오는 7월 시행될 장기미집행시설 실효에 대비해 존치가 필요한 시설은 조속히 사업을 시행하고, 지역여건 및 주민이용이 낮은 시설은 해제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앞으로도 주민재산권을 보호하고 합리적인 도시계획을 통해 도민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후 20년 내에 사업을 하지 못하면 자동 실효되는 제도로 199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김 신품종 '해풍1호' '해모돌1호' 분양

맛·향 좋고 병에 강해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이 2021년산 김 양식에 사용할 신품종 종자인 '해풍1호'와 '해모돌1호'를 어민들에게 분양한다.

16일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에 따르면 2011년 '해풍1호'를 개발해 지난 9년 동안 553개 김 종묘배양업체에 총 2만5717g을 분양해 전남 김 생산량 증대에 중추적 역할을 했다. 특히 '해풍1호' 보급 이후 전남 물김 생산량은 124%, 생산액은 122% 증가해 김 양식 어업인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했다.

올해 처음 유상 분양한 '해모돌1호(모무늬돌김)'는 맛과 향이 뛰어나고 병에 강한 품종이다. 지난 2년 동안 시험 결과 기존 양식 품종에 비해 초기성장이 빠르고 생산량은 33%, 위판가격은 40% 높아 어업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분양을 희망한 어업인은 28일까지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 해남지원 등 각 지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박준택 해양수산과학원장은 "작년 김 양식은 유례없이 잦았던 가을 태풍과 고수온에 의한 갯병으로 김 양식 어업인들이 큰 피해를 겪었다"며 "급변한 해양환경에 대비해 양식현장에 꼭 필요한 신품종을 개발해 보급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